

“주먹밥·헌혈 등 큰 울림...오월 정신, 헌법에”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앞둔 민주묘지

볼커 튀르크 UN 인권최고대표 방문 ‘소년이 온다’ 문제학 역사 등 닛 기려 학생·시민·외국인 등도 발길 잇따라 묘비 닦고 헌화...희생자 애도·추모

“주먹밥을 나누고 헌혈하는 등 서로를 돕고 희생했던 5·18 광주 공동체 모습에 크게 감명받았습니다.”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나흘 앞둔 14일 오전 11시께 볼커 튀르크 UN 인권최고대표는 ‘2026세계인권도시포럼’ 참석에 앞서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 방문해 오월 영령들을 추모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묘역에 들어선 볼커 대표는 헌화와 분향 뒤 묵념했다.

이어 제2묘역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 박기순·윤상원 열사와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속 동호의 실제 인물 문제학 열사의 묘역 등을 둘러보며 닛을 기렸다.

실종된 이들을 기리기 위해 제10묘역에 조성된 행방불명자 묘역과 희생자들의 사진이 있는 유영봉안소도 찾았다.

최근 행방불명자가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특정돼 발굴 작업 중이라는 설명을 들은 볼커 대표는 고개를 저으며 열린 한숨을 내뿜는 등 국가폭력의 아픔에 대해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볼커 대표는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위해 희생된 이들을 잊어서 안된다”며 “각종 분쟁과 갈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진실, 정의, 배상,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수단에서 일어난 혁명 과정에서 독재 정권에 맞선 시위대에 차를 제공했던 ‘티 레이디(Tea Lady)’를 언급하며 “주먹밥을 나누고 헌혈하는 등 서로를 돕고 희생했던 5·18 광주 공



볼커 튀르크 UN 인권최고대표가 14일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조영권기자

동체 모습과 같은 양상”이라고 덧붙였다.

오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인권의 원칙은 전세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UN 인권사무소는 이러한 방향을 옹호한다”며 “양극단이 논쟁할 문제가 아닌 공감대를 만들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묘지에는 이른 오전부터 학생과 시민,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학생들은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묘역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일부는 직접 챙겨온 천으로 묘비를 조심스럽게 닦으며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전북 순창 세습중학교 2학년 조예서양은 “최근 소년이 온다를 읽었는데 비슷한 또래인 책속 아이들이 그런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수습대책위원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김성용(93) 신부도 휠체어를 탄 채 민주묘지를 찾아 추모탑 앞에서 오월 영령을 기리기도 했다.

프랑스에서 온 조이스(34)씨는 “영화 택시운전사를 보고 언젠가는 꼭 광주에 와보고 싶어 5·18 시기에 맞춰 왔다”며 “한국 민주화운동 역사를 접한 뒤 큰 영감을 받았는데, 와보니 정말 감동적이다”고 전했다. /윤찬용·서형우기자

‘오월의 꽃이 피었습니다’ 추모 헌화행사

올해로 2회...5·18기념재단 주관

학생 등 참여 묘지에 카네이션 헌화

학생과 시민들이 오월 영령들의 묘소에 카네이션을 헌화한다. 14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15일 오전 10시30

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 공법 3단체(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공로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와 지역 학생 300여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오월의 꽃이 피었습니다’ 행사를 진행한다.

5·18기념재단이 주관해 올해로 2회째를 맞은 행사는 미래세대가 오월 정신을 생활 속에서 기

리고, 시민이 함께하는 지속적인 추모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합동 참배와 분향으로 시작되며, 각 학교별 학생 대표 1명이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주요 구절을 이어 낭독하며 영령들의 닛을 기릴 예정이다.

이어 국립5·18민주묘지 제1·2묘역과 망월동 5·18구묘지에 안장된 묘소 전체에 학생들이 사랑과 헌신, 존경을 상징하는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놓으며 희생의 의미를 되새기

다.

꽃바구니는 오는 21일까지 묘역에 놓여 참배객들을 맞는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미래세대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열사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공동체적 추모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전국에서 찾아오는 참배객들이 묘역 가득 놓인 카네이션을 보며 오월 정신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연상기자



“장미 향기에 취해보세요” 계절의 여왕 5월에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장미원을 찾은 시민들이 형형색색의 장미 향기를 만끽하고 있다. 조선대 장미축제는 개교 80주년을 기념해 ‘오(무)한번재 장미’를 주제로 17일까지 진행되며 공연과 전시, 시민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조영권기자

광주-제주 초등생, 5년째 역사수업 교류

결연학급 ‘빛탐인 클래스’ 408명 대상 온라인서 5·18, 4·3 등 통해 가치 공유

광주와 제주 지역 초등학생들이 5년째 수업 교류를 통해 지역의 역사적 사실을 공유하고 가치를 함께 배우고 있어 눈길을 끈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은 14일 광주와 제주 지역 결연학급 ‘빛탐인 클래스’ 학생 40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 ‘평화·인권 사람책’을 실시했다.

‘빛탐인 클래스’는 2022년부터 5년째 이어지고 있는 교육 교류 프로그램으로 지난 4월 제주 시교육지원청 주관 4·3 수업을 실시했으며, 이

번 수업이 두 번째다.

수업은 광주용봉초 정혜원 교사가 온라인 화상 플랫폼(Zoom)을 활용해 주먹밥과 518번 버스 등을 소개하며 5·18민주화운동의 과정과 기록물을 알리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빛탐인 클래스’ 학생들은 오는 28~29일과 6월 11~12일 광주와 제주에서 진행되는 ‘평화·인권·생태 체험 캠프’에 참여해 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명숙 광주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들이 상호 존중과 올바른 역사 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류학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늘의 날씨

☀ 해돋이 05:29 해질 19:29 🌙 달돋이 03:53 달짐 17:49

● 광주·전남 날씨

광주	맑음	15/29	장성	맑음	13/28
목포	맑음	15/27	보성	맑음	13/26
여수	맑음	14/25	함평	맑음	13/28
나주	맑음	13/29	순천	맑음	13/27
완도	맑음	15/26	영광	맑음	13/27
구례	맑음	12/29	진도	맑음	17/25
강진	맑음	13/26	흑산도	맑음	15/24
해남	맑음	13/26	고흥	맑음	13/27
광양	맑음	14/27	담양	맑음	13/29

● 전국 날씨

인천	☀	16/28	서울	☀	17/31	춘천	☀	13/30	강릉	☀	13/25
대전	☀	14/30	대구	☀	13/29	부산	☀	15/23	제주	☀	16/24
목포	☀	15/27	흑산도	☀	15/24	여수	☀	14/25	독도	☀	14/17

●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앞바다(북)	0.5-0.5	0.5-0.5
남해 앞바다(남)	0.5-1.0	0.5-1.0
남해 앞바다(동)	0.5-1.5	0.5-1.5
서해 앞바다(서)	0.5-0.5	0.5-0.5
남해 앞바다(서)	0.5-1.5	0.5-1.5
서해 앞바다(서)	0.5-2.0	0.5-1.5

●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목포	00:34	06:05	07:44	01:31	08:19	02:35
	12:43	18:15	20:16	13:45	20:55	14:41

● 생활정보지수

니들이 80	세차 80
모차 챙기세요	세차하기 좋은날
빨래 70	운동 60
실외건조 좋아요	준비운동은 충분히

● 주간 날씨

16일(토)	17일(일)	18일(월)
☀(15/31) 맑음	☀(16/31) 맑음	☀(15/30) 맑음
19일(화)	20일(수)	21일(목)
☁(16/27) 구름많음	☁(18/23) 비온뒤 맑음	☁(17/26) 구름조금

▶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광경과 건강한 먹거리가 풍부한

고흥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4일, 9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 TV** 후원 : **고흥군** Goheung-gun 광고문의 : 062)650-2099